

Cheerful, Enjoyable, Vibrant Workplace

PALESTRA

촬영 / 이성진

Architect / SMC ALSOP - Will Alsop(+44 20 7978 7678)
Site / Blackfriars Road, Southwark, London
Built Area / 27,406.65m²
Main Contractor / Skanska
Structural Engineer / Buro Happold
Project Manager / CB Richard Ellis
Client / Blackfriars Investments, Royal London Asset Management
Photography / Christian Richters

유기적인 형상의 전사공간이 무채색의 경직된 주변부와 대비를 이루며 강렬한 이미지를 부여한다.





비대칭으로 연결된 3개 매스의 서로 다른 축이 위태로움 속에서 조화를 이룬다.

건축물의 디자인이 주변 환경이나 근교에 거주하는 이들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특히 그 주인공이 디자인적 관심도가 높은 전 시장이나 박물관이 아닌, 오피스빌딩이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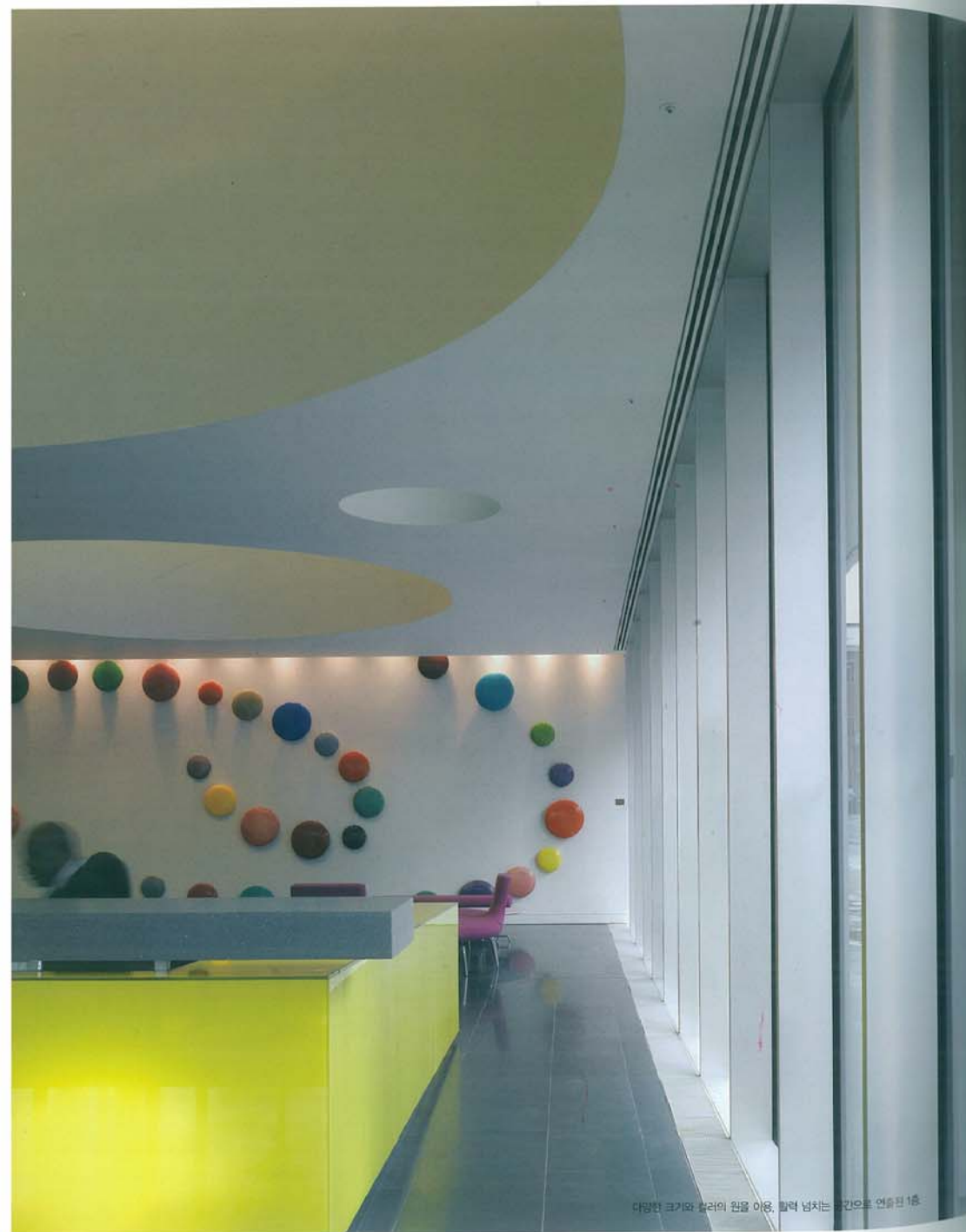
이 질문에 선뜻 이렇다 할 해답이나 예시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 만큼, 오피스빌딩은 디자인적 요구들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이와 같은 오피스빌딩 디자인의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다소 침체된 주변부의 분위기를 쇄신하고자 색다르게 디자인된 오피스빌딩이 완공을 앞두고 세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남부 런던의 Blackfriars Road는 10여 년의 공사 끝에 연장, 개통된 Jubilee Line Extension 지하철역과 New Tate Gallery, Globe Theatre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향후 4개의 대중교통이 만나게 될 접점이기도 한, 떠오르는 중심지이다. 하지만 밝은 개발전망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경기 침체에 따라 점차 쇠락하고 있는 이 곳에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오피스빌딩, PALESTRA가 들어섰다.

PALESTRA의 개발사인 Blackfriars Investments는 건축물 디자인이 주변부의 경기나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찍부터 높은 관심을 갖고 그간 런던 곳곳에 혁신적인 건축물을 지어온 기업이다. 높은 인지도를 구축해 온 기업은 이번 프로젝트에서도 역시 점차 하락해가는 Blackfriars Road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고자 했으며, 프로젝트가 처음으로 기획되었던 1999년부터 개성이 뚜렷한 건축가, Will Alsop을 디자인으로 낙점하고 꾸준히 디자인을 발전시켜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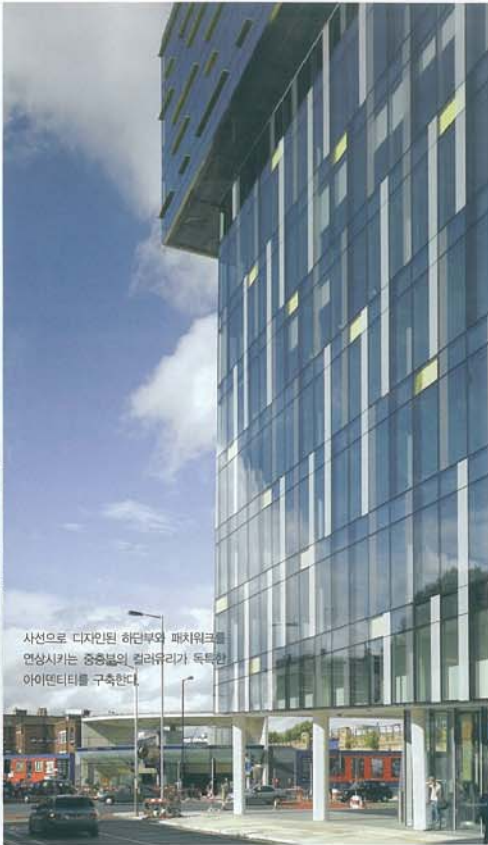


동적인 원형 패턴과 비비드한 컬러로 꾸며진 엘리베이터는 다소 위축되어 있던 Blackfriars Road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다양한 크기와 컬러의 원을 이용,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연출된 1층

교통 중심지에 위치한 앞선 디자인의 PALESTRA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한 건축물이다.



사선으로 디자인된 창단부와 페치워크를 연상시키는 중층부의 컬러유리가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구축한다.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담은 건축물은 디자이너만의 개성이 있으면서도 효율적인 오피스빌딩으로 완성되었다. 건축물을 감싸고 있는 유리 커튼월은 채광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밝고 따스한 내부공간을 연출하며, 비비드한 컬러유리는 다소 암울한 런던의 상업지구에 활력을 부여한다. 또한, 서로 다른 두 거리에서 진입하는 입구를 달리함으로써 사무공간으로 향하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의 동선을 분리, 서로간의 혼란을 배제하고 전선 등의 건축자재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평면의 활용도를 극대화하였다.

건물은 같은 건축적 언어를 담고 있지만 크기와 비율, 디자인이 다른 세 매스로 구성되며, 이들 가운데 강렬한 사선 디자인이 돋보이는 하단부는 남다른 개성으로 내방객을 유인한다. 6m에 이르는 층고를 보이드와 솔리드로 구분, 점차 낮아지도록 디자인한 공간은 다소 정적인 주변부에 역동성을 부여하며, 기다란 직선은 거리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룬다. 또한 사선으로 엇갈리게 배치된 기둥들은 거대한 윗부분을 지탱하면서 독특한 볼거리를 선사하고, 천장의 원형 패턴들은 발랄한 활력을 불어 넣는다. 이에 더하여, 직선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축물에서는 1층에 위치한 유기적인 형상의 부스가 포인트가 되는데, 200m에 이르는 이 공간은 향후 런던개발청(London Development Agency)의 전시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독특한 외관 디자인을 드러내는 컨셉트 스케치



2층으로 구성된 유리 커튼월은 내외부를 효과적으로 소통시킨다.



배관과 배선 등의 건축적 요소에도 디자인과 공간 활용의 가능성을 무한한 디자이너의 감각이 돋보인다.

리셉션 공간은 원형 패턴을 활용, 흥미로운 공간으로 완성했다. 벽면과 천장을 채우고 있는 등근 패턴들은 부드러운 인상을 전하며 직선적인 리셉션 데스크와 대비를 이루고, 다채로운 컬러는 활력을 불어넣는다.

한편, 2층에서부터 8층까지를 구성하는 매스에서는 패치워크를 연상시키는 유리 커튼월이 인상적이다. 한 층의 높이와 같은 일반 유리와의 1/3에 해당하는 비비드한 컬러의 유리를 반복적으로 배치한 이들은 2층으로 제작되어 견고하며 곳곳에 테라스를 두어 여유로운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비스듬히 기울어진 이 부분은 가장 넓은 평면의 최상부와 잇달리게 배치되어 있어, 역설적인 디자인을 통한 색다른 긴장감을 부여한다.

한편, 건축물은 디자인 뿐 아니라 효율성에서도 높은 합격점을 받고 있다. 사무공간 디자인의 관건이라 할 수 있는 가변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디자인하는 배관과 배선에 유념하였다. 이에 따라 전선이나 수도관과 같은 기술적인 요소들이 중앙에 집중된 건축물은, 각 층별로 각기 다른 공간 연출이 가능하다. 이렇듯 기술력과 디자인이 접목된 PALESTRA는 완공을 몇 달 앞두고 있지만 이미 분양이 완료되는 등 주변부의 랜드마크로서 입지를 굳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사선으로 배치된 기둥이 독특하다.



개성있는 건축물의 특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입면도.

